

천만자식들이 러치는 심장의 목소리

《우 리 어 머 니》

이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명칭도, 추구하는 리념도 제각각인 정당들이 있다. 공통적인것은 그 어느 당이나 자기 당이 진짜 국민을 위한 당이고 자기들이 집권하면 국민이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 화려하고 달콤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런 당들을 쳐다보는 인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하고 민심의 저주와 버림을 받고 존재를 마치는 당들도 적지 않다.

세상에 당은 많아도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당,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심장의 목소리로 어머니라 부르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당은 오직 하나뿐이니 그것이 바로 마치고 낫고 붓을 붉은기에 당마크로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되어 오늘에 이르는 70여년간 애국애족위업의 위대한 향도자,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공화국에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노래가 특별히 많다.

《당은 나의 어머니》, 《심장이 말해다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당을 노래하노라》,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 가사와 폭이 나오고 전 인민적인 가요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노래들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진정한 인민의 당이기때문이다. 어머니가 없다면 태어날수도, 살뜰한 보살핌의 손길속에 성장할수도 없듯이 조선로동당이 없으면 참다운 삶, 아름다운 미래도 없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는 신성한 그 이름으로 부르며 안기고 따르는 것이다.

어머니의 살뜰한 손길은 한집안의 트락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라는 성스럽고 크나큰 《어머니》는 온 나라 인민들을 다 보살펴주고 힘겨울수록 더 따뜻이 위해주고 길을 곧추 가라고 힘과 용기도 북돋아준다.

이런 고마운 당, 참된 운명의 보호자를 왜 온 나라 인민들이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받들고 따르

는지 모르나 당의 모습은 그 당을 이끄는 령도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조선로동당이 어머니당의 모습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는것은 령도자가 위대하기때문이다.

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지론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여주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조선로동당은 애국애족위업의 위대한 향도자,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주체52(1963)년 12월 황해북도 료양에서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

집하시였다. 그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며칠전 솜옷도 입지 못하고 놀던 아이들을 만나시였던 때의 일을 더듬으시며 인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것은 당이 자기들의 어머니이기때문이라고, 이름그대로 어머니당인데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다고 보고도 본체만체하고서야 어떻게 어머니당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솜옷과 모자를 무상으로 공급할데 대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확에는 공식이 있지만 혁명을 하는데는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고 하나의 로선을 제시하시여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당의 운명과 전도는 당을 창건하고 이끄는 령도자의 위업계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품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의 어머니당으로서의 성격은 변함없이 고수되도록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수많은 강령적 저작물에서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해 밝혀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온 나라 인민들이 축원의 인사를 보내는 뜻깊은 생신날에도 오로지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해 일을 더 많이 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신 장군님께서는 어느해 2월 일군들에게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일군들은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중의 어머니로서 구실을 해야 한다. 일군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의 밤그릇에 마음을 쓰듯 정성을 쏟아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오늘도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고있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우리 당은 말하는 당이 아니라 일하며 투쟁하는 당이라고 하시며 당을 철두철미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활동하며 투쟁하는 당으로 건설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리여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혁명적당, 어머니당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더욱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

이 짙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고 인민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당을 어머니라 부르는 인민의 목소리에서 가장 큰 보람과 회열을 느끼시며 인민의 믿음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생의 값진 재부로 새겨안으시고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 당을 지키려고 수십년세월 모진 고난을 겪어온 인민들의 고생을 이제는 하나라도 덜어주고 인민들에게 최대한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자신께서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리여있다.

인민을 위해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지닌 세계 유일무이한 당으로 더욱 빛나고있는 것이다.

당이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면 인민은 이 세상 끝까지 따른다.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는 이런 노래도 있다.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열백번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싶어라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통 치리라

이것이 공화국인민들모두가 조선로동당을 우리러 러치는 심장의 고백이다.

오늘날 조선로동당에 대한 온 나라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심은 더욱 굳건해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수도 따라할수도 없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스스럼없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그 품에 자기들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고있으며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필승의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치고있다.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이 세상 한끝이라도 가야 한다는것이 이 나라 인민들모두의 심장의 맹세이고 당이 바라다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것이 이 나라 인민들의 기상이다.

이 땅 어디서나 당의 부름에 심장을 내대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로지 령도자의 사상과 뜻으로만 심장을 불태우며 즐겨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는 이런 노래도 있다.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만 받들고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이것이 필승불패하는 조선로동당의 힘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을 엄숙히 맹약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고 인민의 복리증진은 가장 중차대한 일,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 나는 그저 인민의 믿음이면 된다. ...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인민대중과 위대한 혼연일체, 일심단결을 이룬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이라는 값높고 숭고한 이름으로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며 영원히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인민을 위한 열사복부의 길에서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지녀야 한다

언제인가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될데 대하여 교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인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있

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자면 진정으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

이 세상의 좋은것을 다 자식들에게 안겨주고싶어하는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며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나서서것이 어머니의 성품이다. 자식을 생각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티없이 깨끗하고 응시됨이 진실하다. 그래서 자식들은 기쁠 때에도 어머니를 찾으며 다 자라서도 어머니를 찾는 것이다. ...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은 끝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일렁이

었다. 송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정경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라는 말속에는 자식을

위해 바치는 어머니의 정성과 노력이 헤아릴수 없이크다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긴다고, 일군들이 이러한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지니고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아글라쿨 애촌단편 인민생활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 뜻깊은 태양절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를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모든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격정하고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조선로동당을 사람들의 운명도 미래도 따듯이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고 일군들을 정경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발을 먹

으면서 그들과 교락을 같이 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말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찬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본사기자

